

## 【총장칼럼】

## 성경의 두 가지 인간

권호덕 총장(Dr.theol)



16세기 종교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이 고발하는 인간 곧 타락하여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처방법을 성경을 통해 마련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루터는 자기 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면서 인간의 전적인 무능을 경험하며 마침내 성경을 읽다가 문제 해결의 열쇠를 발견했다. 즉 그는 그 자신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달걀로 바위를 치는 듯한 그의 종교개혁운동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수도원의 ‘검은 탑’ 속의 경험의 놀라운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복음의 환희를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의 비참함을 신음하듯이 겪으며 인간 내면의 문제를 살핀 것이다. 칼빈은 성경을 주석하면서 타락한 인간 문제를 매우 깊이 있게 알고 있었는데 특히 시편을 연구하면서 시편을 인간 영혼의 해부도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칼빈은 정교하게 창조된 인간이 타락하여 부패하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한 만행을 잘 알고 있었고 심지어 중생한 사람들 가운데서 성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잔인한 속성도 알고 있었다.

그러면 성경은 인간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을 두 가지로 나누어 열거하면서 그 특성을 보여준다. 그 중에 하나는 여인의 후손에 속한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뱀의 후손에 속한 사람이다. 더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전자는 성령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 ‘영’(靈)이고, 후자는 성령 없이 육신의 정욕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육신’(肉身)들이다. 구약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을 가운데 일부를 통해 메시아 예표인물들이 준비되었음을 보여주고 이들이 시대적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메시아의 특성을 사전(事前)에 보여주며 메시아 도래를 준비했음을 가르친다.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육신의 정욕에 빠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타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들은 너무나 강박해진 나머지 심지어 성령으로 사역하며 자기들을 비판하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 또 복음서는 육신의 정욕에 빠진 유대인들이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실을 고발한다. 바로 이런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며 그의 선교사역을 조직적으로 방해했음을 사도행전을 보여준다. 성경은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자들이 창으로 찌르는 듯한 증오심으로 성령의 사람들을 핍박했음을 지적한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병든 肉身인 인간들의 문제점을 매우 깊이 인식하고 있었고 이런 인간들을 고치는 처방법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가르쳤다. 칼빈의 성화론은 이런 처방 가운데 하나이다. 중생 이후에도 아직 남아 있는 죄성으로 인해 기독교인들 역시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잔인하게 라이벌을 핍박하고 자기 유익을 챙긴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인 동시에 역사가 명백하게 가르친다. 종교개혁운동이 성공하려면 이처럼 고장 난 인간의 내면적인 구조를 잘 분석하고 그 해결방법을 성경에서 찾아 정교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교단 내지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성도들이 성령의 도움으로 육신의 정욕을 쳐 복종시키며 영적인 전투를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도란 성령의 능력으로 중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에 빠진 자들 곧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시도록 수종을 들며 나아가 이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받아들여 성령에 인도함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런 행위는 기독교인의 삶의 기초(ABC)가 된다. 한국교회 내에 이런 움직임이 있는 한, 거기엔 소망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대 한국교회에는 성경과는 다른 방식으로 교세를 확장하려는 운동들이 자주 보이고 이를 통한 부작용이 많이 드러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어쩌면 이것은 ‘다른 복음’에 속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사실 현대 한국교회에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감성적인 면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자기도취에 빠져 이를 통한 자기 행복을 추구할 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살피지 않고 종교 활동을 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사는 자들을 향해 ‘이들은 버리운 자’라고 경고한다. 영생을 원한다면 새겨볼 말이다.

## 【기독교계소식】

### 한기총, 동성결혼 합법화 추진 반대

‘차별금지법의 입법화’ 추진 절대 불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이영훈목사)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최근 추진되고 있는 ‘동성애 및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법안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동성애는 성경이 가르치는 창조의 질서 및 생물학적으로 사회적인 통념에 어긋난다 △동성애는 단순한 ‘경향’의 문제가 아니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분명하게 ‘죄’이다 △동성애를 통한 ‘동성결혼은 생물학적인 질서를 파괴하며 인간사회의 전통적인 가치와 질서를 뒤흔드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동연합회는 “동성애 반대는 인권침해이자 성소수자의 차별”이라는 명목 하에 진행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입법화’추진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최근 서울시가 동성애를 용인하는 내용으로 인해 논란이 되었던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채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결단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기독교신문)

### 종교인과세 법제화 2년 유예로 확정

새누리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지난 10일 새누리당 정책위 주호영 의장은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시행령의 시행을 2년 늦추는 방안이 보고됐다”며, “이를 당의 입장으로 정했으며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 의장이 정부를 상대로 요청하고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의장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빨리 진행하면 올해 중에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내 관련 시행령 규정이 여당의 요구대로 개정된다면 시행령을 통한 종교인 과세는 당초 예정된 내년 1월이 아닌 2017년 1월로 미뤄지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종교인이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 가운데 ‘사례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종교인들의 소득 가운데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20% 중 20%(4%)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내용으로, 내년 1월1일 이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

종교인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근거를 담은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후 종교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지난 2월 ‘원천징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자진 신고·납부’로 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에는 저소득 종교인에게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이 종교인과세를 통과시킬 ‘골든타임’이라고 보았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이 있으면 과세가 있다’는 과세 형평성 원칙을 내세우며 종교인 과세세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기독교계의 반발을 의식해 2월과 4월 임시국회로 연기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올해 말로 종교인 과세 처리가 무산될 경우 내년 중반부터는 정치권이 차기 20대 총선을 위한 선거정국으로 재편돼 종교인 과세 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기독교신문)

## 독실한 기독교인 안창호 재판관, 유일한 여성 이정미 재판관은 끝까지 “간통죄 합헌”

간통죄 존치를 옹호하는 의견을 낸 재판관은 안창호 재판관과 9명 중 유일한 여성인 이정미 재판관이다. 안창호·이정미 재판관은 간통 행위가 가족공동체와 사회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것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다.

▲ 안창호 재판관: 이들은 반대의견에서 “간통은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이란 사회적 제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해야 하는 범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창호·이정미 재판관은 간통이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 국민의 법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봤다. 이들은 반대의견에서 “간통죄를 폐지하면 성도덕의 최소한의 한 축을 무너뜨려 사회 전반에서 성도덕 의식의 하향화를 가져오고 간통에 대한 범죄의식을 없애 성도덕의 문란을 초래한다”라고 우려했다.

▲ 이정미 재판관: 가족 공동체가 파괴됐을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반대의견에서 “부부 이혼시 가정 내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과 간통으로 파괴된 가정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라며 “간통죄를 폐지하면 혼인관계에서 오는 책임과 가정의 소중함은 뒤로 한 채 오로지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만을 앞세워 가정 내 약자와 어린 자녀들의 인권과 복리가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창호 재판관은 취임 초기부터 간통죄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펴왔다. 안 재판관은 인사 청문회 때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아직 여성이 입는 피해가 크고, 간통죄를 범하는 사람이 남자일 가능성이 커 현 단계에선 유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안 재판관은 평소에도 간통죄에서 만큼은 아직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아 폐지하기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고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재판관은 검사시절부터 검사들의 예배 모임인 신우회 활동을 해왔고 기억에 남는 책이 성경책이라고 할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인이다.(조선일보 박정현 기자)

개혁주의 신학의 시각으로 볼 때 이번 판단은 인간 사회를 건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세우신 율법의 둘째 돌판을 무시한 처사이다. 과연 인간본위적인 이런 시도가 진적으로 부패한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매우 우려스러운 판단으로 보인다. (편집실)

## 【학교소식】

### 1. 캄보디아 라이프 대학과 MOU 체결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는 2014년 11월 18일 구견희 선교사가 총장으로 있는 캄보디아 라이프 대학교와 학사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이로써 본교는 향후 선교사역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있는 재학생들에게 선교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성령에 근거한 개혁신학과 질 높은 신학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캄보디아 라이프 대학은 기독교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06년 설립된 4년제 사립대학교로서 간호학과, 경영학과, 법학과 등 10개의 학부와 4개 과정의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5대 종합대학 안에 들어가는 우수한 대학이다.

이날 체결식에는 라이프 대학에서 구견희 선교사(총장), 민혜순 이사, 그리고 함성범 팀장(라이프대학교 송도사무소)이 참석했으며, 본교에서는 권호덕 총장, 이세진 부총장, 지태일 교수(전 교무학생처장), 이재성 교수(신약학), 조항현 목사(전 기획행정처장)이 참석하였다. 모쪼록 금번 MOU를 통해 본교와 라이프 대학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에 아름다운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김대진 교수)



### 2. 개강식

지난 3월 2일 2015학년도 1학기 개강식이 있었다. 이번학기 **입학생**은 다음과 같다.

- 목회학석사(M.Div.) 11명, 상담학(MA) 4명, 선교학(MA) 2명,
- 신학석사(Th.M.) 박사(Ph.D.) 4명(선교 2명, 상담 1명, 조직신학 1명), 총 27명
- 평생교육원(조직신학교사반 6명, 주석-설교반 2명),
- 상담연구원 9명(자격증반)

3. 이번 학기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원’**을 개설되어 3월 중순부터 공부가 시작된다.



### 1. 개요

제사는 종류에 따라서 번제(燔祭, Burnt Offering), 소제(素祭, Meat Offering), 화목제(和睦祭, Peace Offering), 속죄제(贖罪祭, Sin Offering), 속건제(贖愆祭, Guilt Offering)의 5대 제사가 있다.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화제(火祭, Offering by fire), 전제(奠祭, Drink Offering), 요제(搖祭, Wave Offering), 거제(擧祭, Heave Offering)의 4가지 제사로 나눈다. 레위기 1장은 그 가운데 번제(Burnt Offering)의 규례를 설명한다. 출애굽기의 회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한다는 임재의 상징이다. 하나님이 그 회막에서 제사법을 가르치려고 모세를 부르신 것이다(1절). 이것은 기독교가 계시종교(啓示宗教)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방법, 시간, 장소 등도 하나님이 친히 계시한다. 제사란 공의의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만나는 방법이다. 마침내 구약의 모든 제사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히 4:14-16; 5:7-9)께서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히 9:11-12).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히 10:19-25).

### 2. 번제의 종류

번제물의 종류는 소(3-9절), 양이나 염소(10-13절), 새(14-17절)의 번제가 있다. 번제의 제물은 흠 없는 수소, 흠 없는 수양이나 수염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사용한다. 제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흠이 없어야 한다. 수소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인내, 도수장으로 끌려가면서 잠잠하던 수양은 그리스도의 순종, 비둘기는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세 종류의 번제물을 구별한 까닭은 빈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제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결과이다. 소 바칠 능력에 못 미치면 양을, 양 바칠 능력에 못 미치면 비둘기를 바치도록 했다(레 5:7). 마리아가 “아기를 주께 드리고” 비둘기 한 쌍을 제물로 바친 것은 당시 예수님 가정의 형편이 좋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눅 2:22-24). 그러나 모두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레 1:9, 13, 17)고 말씀한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기록한다(창 4:4-5).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삼상 16:7).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롬 12:1-2),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요 4:24)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 3. 번제의 교훈

- (1) 번제를 드리는 자의 마음은 감사(시 50:9-15), 순종(삼상 15:21-23), 믿음(히 11:4),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막 12:33), 인애와 하나님 지식(호 6:6)이 전제되어야 한다.
- (2) 죄인이 제물에 안수한 후에 잡고(레 1:3-5), 그 후에 피를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리고(레 1:5,11), 제물의 각을 떠서 제단에서 불렀다(레 1:6-9). 안수는 양자가 연합하여 제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다. 그 결과 제물을 태울 때에 그 죄도 도말한다는 의미이다.
- (3) “흠 없는 수컷”을 제물로 사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상징한다. 말라기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흠 있는 제물들을 바침으로 책망을 받았다(말 1:6-8, 13-14).
- (4) 번제는 머리(생각, 사상, 지식), 콩팥과 기름(생명), 내장(마음, 뜻, 온 정성), 정강이(모든 행동)를 쪼개 깨끗이 씻어 단 위에 불살랐다. 향기로운 예배란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예배여야 함을 보여준다(막 12:28-34).
- (5) 제물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번제(히, 올라)의 향기로운 냄새란 히브리어로 “안식의 냄새”란 뜻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의미이다(엡 5:2).
- (6) 제물의 차등을 허용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고후 8:11-12),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하여 즐겁게 바치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뜻이다(고후 9:5-7).
- (7) 상번제는 아침저녁으로 드려야 하는데(출 29:38-46), 안식일, 월삭,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을 지킬 때에도 상번제를 먼저 드린 후에 특별한 절기의 번제를 드렸다(민 28:9-29:39). 이것이 주일이나 특별집회를 하는 날이라도 새벽기도를 빠뜨릴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준순 목사(대전 좋은 교회)



나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이 목사, 이 목사의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신학대 시절에 함께 입학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훈련을 했던 동기를 졸업 후 20년 만에 만났다. 그는 직장을 다니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온 신학도였다. 그러기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기도와 학업에 집중하였다. 그런데 4학년이 되자 목회자가 자신의 소명이 아니었다고 고백을 하고 영어 공부에 집중을 하더니 졸업 후 1년 뒤 고려대 영어영문과 대학원에 입학하였다.

각자의 길이 다르게 되자 간간히 소식은 들을 수 있었으나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두 달 전 연락이 왔다. 대전에서 ‘고대어학원’이라는 영어학원을 한다며 만나자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반가웠고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런 저런 담소를 나누었다.

10년 전 대전에서 학원이 시작하면서 2,3년을 고생을 많이 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2호점까지 문을 열면서 교사만 100명이 되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성공을 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1시간 정도 소개하였다. 장년부 성도가 600명 정도에 장로가 20명이고, 교인 중에는 의사 몇 명, 법조인 몇 명, 사업가 몇 명, 관료가 몇 명 등등. 결론을 말하면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 담임목사님은 행복한 분이시라는 것이다.

그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은 온전히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만 하시면 되고 그 외의 일들은 목사님은 말씀만 하시면 아니 말씀을 하시기도 전에 교회의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깔끔하게 진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내게 질문을 한 것이다. “이 목사 교회에도 이런 성도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 목사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가?” “그럼, 좋은 성도들과 함께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지.” 목양실로 돌아와서 좋은 교회를 개척하고 지나간 12년의 시간들을 되새겨 보았다. 그리고 1월 13일에 있을 ‘좋은교회 이전 입당감사예배와 목사위임식’에서 할 답 글을 정리하였다. “오늘 위임받은 이준순목사님의 다짐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강단에 서는 순간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참으려 해도 참을 수 없는 눈물이 나오는 것이다. 우리 ‘좋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나의 곁에 서있는 자랑스럽고 듬직한 성도들을 보자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 나오는 벽찬 감격을 도저히 억제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2002년 3월 14일, 지상 4층 건물 중 4층 전체(38평, 엘리베이터 없음) 보증금 1,500만원 월 35만원에 임대하여 교회를 시작하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기도하며 달려온 고마운 성도들, 목사가 실수하고 부족하여도 한 번도 목사를 욕하거나 언성을 높이지 않은 인자한 성도들, 자기와 생각이 달라도 목사의 결정에 언제나 ‘예’라고 대답하며 적극적으로 따라준 성도들, 목사의 눈빛만 보아도 어디가 아픈 줄 아시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들, 이 외에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를 기록하자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찬송가 304장)다는 찬송이 바로 나의 대답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증거한다. 이것이 바로 나의 ‘좋은교회’ 성도들을 향한 고백이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들과 함께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목회하는 나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 【사도행전주해】 “사도행전 1:6-8에 나타난 하나님나라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1)



정석조교수(Ph.D.)

사도행전의 저자는 첫째 단락에서 누가복음을 예수님이 승천 전에 행하신 일들과 가르치신 말씀들로 요약하고(1:1) 바로 그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로 요약하며 누가복음의 주제를 명시했다(1:3).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행전에 겨우 8회 밖에 나타나지 않지만(행 1:3,6; 8:12; 14:22; 19:8; 20:25; 28:23, 31), 서두(행 1:3,6)와 결미(행 28:23, 31)에서 사도행전의 주제로 명시되고 있다.

사도행전의 둘째 단락도 하나님의 나라 주제로 시작한다(1:6).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배웠기 때문에(1:3) 그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당장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눅19:11)을 말로 표현한다(1:6). 개역개정을 포함하여 많은 번역성경들은 1장 6절을 잘못 번역했다. 번역자는 하나님나라에 관한 제자들의 오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장애물을 설치하는 셈이다.

**개역개정 1:6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헬리어 원문 1:6**

**사역(私譯) 1:6 주여, 이 때에 당신은 이스라엘에 그(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까?**

사도들의 질문은 그들이 하나님나라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잘못된 번역본들에 의하면, 사도들이 하나님나라의 회복에 전혀 관심이 없고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에만 집착하고 있다. 사도들은 부활 후 승천까지 40일간 예수님의 모든 행하심과 가르침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라고 재교육을 받아왔다(1:1-3).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당장 회복시킬 것이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서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는 방식으로 대답하신다.

7절의 “때나 기한”은 6절의 “이 때에”에 대한 교정이다. 예수님의 첫 교정은 하나님나라의 회복의 때가 ‘이 때’라는 임박성의 문제다.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확신과 대조적으로 예상 밖의 부정적 대답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는 사도들이 알 권세가 없고 아버지 자신의 권세라고 대답하셨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 완성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상사역동안에도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나라가 즉시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하곤 했고, 예수님은 그런 오해를 교정하기 위해 비유로 가르치곤 하셨다(눅19:11-27).

사도들이 오해하게 된 요소는 누가복음 19장과 사도행전 1장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예수님이 가시는 장소인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나라가 밀접하게 연결된다(눅19:11, 28; 행1:4, 6). 누가신학에서 지정학적 장소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시작하고(1:9) 거기서 마친다(24:53). 누가복음의 구조에 따라 중심부분인 예루살렘 여행기사도 예루살렘으로 시작하고(9:51) 마친다(19:44). 예루살렘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어주는 중요한 지정학적 역할로써 신학적 의의를 전달한다(눅 24:47; 행 1:4, 8; 5:28).

명시적으로 반복되는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사야의 종말론적 소망을 반영한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하게 연결한다. 특별히 하나님의 왕이심과 성전의 밀접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왕이신 것을 선포하며 예루살렘 성에 오르셔서 통치하실 것이고(사 40:9-10; 52:1-8; 60-62장) 특별히 그 보좌인 성전에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충만케 하실 것이다(사 6:1-13). 이사야서에 나타난 예루살렘은 종말론적 하나님나라의 관점을 보여주는데, 그 장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종말론적인 통치의 보좌이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적으로 가르치셨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 완성될 것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나라의 회복에 관한 사도들의 확신을 인정하시지만 그 회복의 때와 기한은 사도들의 알아야 할 권한이 없고 아버지의 권한이라 교정해주셨다(1:7).

8절의 “땅끝”(e[fwj evsca.tou th/j gh/j)은 6절의 “이스라엘에”에 대한 교정이다. 예수님은 종말론적 하나님나라의 회복에 관한 사도들의 둘째 오해를 교정하신다. 그들은 하나님나라의 회복 영역을 민족적 이스라엘에 제한하고 민족적 이스라엘에 종말에 회복될 새 이스라엘인 영적 이스라엘의 의미를 주지 않았다. 하나님나라의 현재적 임박성이나 미래적 지연성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달려 있다. 이것은 이미 누가복음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눅24:47).

예수님은 하나님나라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긍정하신다. 사도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고 있다. 그 하나님나라의 회복 사명을 위하여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했다. 여기서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의 복음사역을 회고시킨다(눅 4.14). 특별히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말씀의 능력이 사도행전의 주제요소이다(행2:36; 3.18-19; 19.20).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말씀의 능력도 이사야서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사40:6-8).

하나님나라의 회복은 정치 경제적 고난으로부터의 피상적 회복을 가져오는데 있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근본적인 회복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속죄와 새언약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시작하여 땅 끝 모든 민족에게까지 확장될 것이다(눅24:47). \*

## 【성도들의 간증】



###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철 (동천교회 안수집사, 라보라토리 신파 대표)

<서신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역자들을 만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사랑하시는 믿음의 형제자매 동역자님들께 인사 드립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항상 기쁘고 복이 되고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서신원을 통해서 아름답게 섬기는 동역자들과 그 분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소개 되어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고 친밀해 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에 같이 담당 할 수 있는 일 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또한 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수록 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쓰셨던 기도말씀들이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 관대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여전히 살아 숨 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건강과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일 할 수 있는 '일'을 주셨습니까? 또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과 주위의 사람들과 교회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 받게 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감사드릴 뿐입니다.

올해가 저의 직장 생활 30년 째 해 입니다. 이 30년 생활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많은 순간 직접 체험 해 왔습니다. 30년 간 일하며 누리고 당하고 겪은 모든 순간 순간의 성공, 칭찬, 상급, 도전, 희열, 보람, 영향력, 쾌감, 팀웍, 좋은 사람들, 그 반면에, 고난, 어려움, 실수, 잘못, 실패, 오해, 외로움, 막막함, 압박감, 피로, 병, 잘못된 관계.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세밀하고도 정확한 때에 따라 내려 주신 도우심의 은혜가 없었으면 절대로 회복하고 감당 하지 못 하였을 것 임을 진정 잘 알고 있습니다. 남보다 특별히 더 잘난 것도 아니고, 혼자만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배경도 없는데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이 기간 중에 발견된, 현재의 발전된 의술로도 치료하기 어려운, 저의 심각한 병도 치유해 주시는 크신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30년 중 최근 3년간은 한국에 처음 진출한 스페인 제약 회사의 대표로 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안방에서 1인 회사로 시작하여 회사법인 등록부터, 사무실 개설,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국내 등록, 외국과 한국의 문화, 제도 차이 극복을 위한 의사소통, 신실하고 능력 있는 인재 채용, 국내 제약회사, 굴지의 유통 기업, 대학 병원, 유명 전문 의원 고객 개발, 마케팅, 영업, 재정, 법률, 인사, 제조, 통관, PR, 등등.... 예전에는 몰라도 되고 누군가 해 주던 일들을 직접 손 대어 할 때가 많습니다. 가끔은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하곤 했습니다만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로 신다섯, 어찌 보면 늦은 것 같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또 시키시려고 저를 밑바닥부터 다시 공부 시키시나 궁금하고 기대되고 흥분 되기도 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신 직장 일 을 통해서 이런 일을 계속 해서 하고 싶습니다.

- 적은 인원이라도 우리 일터에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동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 우리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도우며 하나님의 일꾼 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 선교지의 사역자들을 만나 따뜻한 한 끼 식사라도 같이 대접하며 응원하고 싶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순수하고 열정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 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쁘게 일 할 수 있게 하시어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영준교수(Dr.theol)

욥기 1-2장의 프롤로그(서언)에서는 의로운 욥이 어떻게 고난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다. 지난 회에 설명했지만, 여기에서는 욥을 모범적인 경건자로,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소개에 이어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내기로 인해 그는 고난에 처하게 된다. 프롤로그는 두 개의 무대에서 진행된다. 하나는 우스(Uz)로 불리 우는 동쪽 땅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무대는 하늘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이 주관하시는 천상회의를 만날 수 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에 속해 있는 자이거나 천사를 의미한다. 어느 날 이들이 여호와 앞에서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 “가운데”(창 23:10; 40:20; 왕하 4:13)라는 표현 때문에 사탄이 천상회의의 구성원일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사탄이라는 존재의 기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후에 펼쳐지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와 사건의 전개 안에 나타나는 그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우선 욥기에서 사탄은 항상 정관사와 함께 등장한다. 히브리어 사탄(שָׂטָן)은 “대적하다” 혹은 “원한을 품다”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래서 6절에서의 히브리어 “하사탄(שָׂטָן)”은 고유명사 “사탄”보다는 “그 대적자”로 번역할 수 있다. 욥기에서 사탄은 욥의 대적자로 등장하지만, 우리는 사탄을 욥이라는 특정한 사람의 대적자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구약에서 사탄(שָׂטָן)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원수”나 “고발하는 자”를 표현할 때 사용되며, 하나님의 종(욥 1:8에서 하나님은 욥을 “나의 종”이라 부르신다),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자이다.

7절에서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욥의 첫 번째 고난이후의 2장 2절에서도 등장하는 이 대화는 사탄이 무엇을 하는 자인지를 보여준다. “두루 돌다”라는 히브리어 슈트(טָוַם)는 특정한 목적을 갖고 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한다(예를 들어, 민 11:8 “만나를 찾기 위해”; 삼하 24:8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 렘 5:1 “의인이 있나 알아보기 위해”; 암 8:12 “말씀을 구하기 위해”). 또한 “여기저기 다녔다”라는 히브리어 히트할레크(הִתְהַלַּק)도 목적 없이 여기저기 방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목적을 갖고 가거나 사는 것을 표현한다. 따라서 사탄은 천상의 무리에서 빠져나와 방황하는 영적 존재라기 보다는 신앙심을 평가하고 이간질시키는 목적을 갖고 인간들을 살펴보는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 신앙인을 시험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를 지옥에 데려갈 수는 없다. 욥기에 의하면 사탄은 하나님에게 종속된 자이고, 그분의 신하들 중 한 명으로 그 앞에 나온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인 없이는 인간에게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닥치는 고난의 원인이 사탄이나 하나님이나에 대한 오랜 논쟁에 대해 지면상 여기에서 다루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 5:8; 참조, 계 12:9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대적자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 구실을 찾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믿고 시험을 견디는 자는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히 7:25; 요일 2:1). 최근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다. 구약 성경을 히브리 성경이라 부르고, 유대인들을 장자로 그리스도인들을 서자 정도로 여기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종말의 징조로, 팔레스타인을 땅 끝이라 생각하며, 이스라엘 중심의 신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다(심지어 그리스도의 재림이 시온에 임한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다). 또한 온전한 복음 외에 구약의 음식규정을 더하여 지킨 다든지, 주일에 더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다.

왜 이런 생각과 행동들을 하는가?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가 무엇을 더하여야 하는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마 5:20)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들보다 더 율법적으로 살고, 더 히브리적으로 사고하고, 더 유대교식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으로는 결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의미이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말이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는 이유는 욥의 경건이 하나님의 은혜 외에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에서였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아닌 뭔가 다른 것을 더하려 할 때,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갖고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할 때, 그 때 사탄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고 있는 것이다.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에는 1956년 경주 불국사에서 발견된 십자가 모양의 돌조각과 마치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한 조각상이 전시되어 있다. 이것을 근거로 일부 학자들은 조선시대 이전(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 이미 한반도에 기독교가 전래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말한다. 그리고 이 기독교를 “경교(景教)”라고 부른다. 물론 경교의 한반도 유입에 대한 이론은 객관적 입증보다는 가설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한반도 유입과 관련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처음으로 경교의 한반도 유입의 가능성을 언급한 사람은 영국의 여성 고고학자였던 고든(E. A. Gordon)이다. 기독교의 동양 전래와 그 과정에서 기독교와 불교의 상관성에 대해 연구하던 고든은 한일합방 무렵 한국에 머물면서 불교 사찰을 살펴본 후 한국 불교와 경교의 연결 가능성을 제시하였다.<sup>1)</sup> 그렇다면, 경교는 어떤 기독교일까? 그리고 어떻게 한반도와 관련이 있을까?

경교(景教)는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의 중국식 표현이다.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인성적 측면을 과도하게 필역하다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네스토리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그의 이단성에 대한 재확인 이후 로마제국으로부터 추방되어 페르시아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다. 페르시아에 정착하게 된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는 해외 선교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인도를 비롯한 아라비아 지역과 실크로드를 통해 중앙아시아와 중국에까지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중국에 유입된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sup>2)</sup>는 중앙아시아를 완충지역으로 해서 서쪽의 아라비아 세력을 견제하고자 했던 당나라 태종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경교의 한반도 유입을 긍정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시기가 한반도에서는 신라가 당나라의 힘을 업고 삼국을 통일하고, 통일 이후 친당정책을 통한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통일신라의 해상무역이 중국과 일본을 넘어 아라비아와 페르시아 지역까지 확장되었을 가능성을 자신들의 이론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교는 안사의 난(755년) 이후 외래종교를 배척하는 분위기와 지나친 토착화 현상으로 인해 급격하게 쇠퇴하게 되었다. 이후 400년 정도 사라졌던 경교는 몽고어로 ‘복음을 섬기는 자 혹은 복음을 받들어 섬기는 자’라는 의미의 ‘야리기온(也里可溫), 아이개온(阿爾開溫)’이라는 이름으로 원(元) 대에 다시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었는데, 학자들은 원대 고려와의 정치, 문화, 종교적인 교류 속에서 당대와 마찬가지로 경교가 한반도에 유입되었고 이미 유입된 불교와 혼합되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서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1950년대 경주에서 발굴된 십자가와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의 상에서 조심스럽게 경교의 한반도 유입, 그리고 불교와의 교류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분명 경교의 한반도 유입은 중국과 한국의 정치적, 외교적, 문화적 역학구조와 관계 속에서 결코 무시하거나 무조건 부정할 수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명할 만한 보다 객관적이고 분명한 자료들이 부족한 실정임으로 학문적인 가설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평양대부흥의 진원지 평양장대현 교회

1) 한국기독교사연구회, 한국기독교의 역사(1), (서울:기독교문사, 1989), 37.  
 2)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는 페르시아에서 온 종교라는 의미의 ‘파사교(波斯教)’ 혹은 로마로부터 시작된 종교라는 의미의 ‘대진교(大秦教)’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광명정대(光明正大)한 종교라는 의미의 ‘경교(景教), 대진경교(大秦景教)’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다.

## 【순장의 뿌리역사】 興南 2세대(흥남 철수 1세대의 자녀들, 대부분 60代),

### 28세 美청년을 껴안다

#### 65년전 흥남서 피란한 덕천敎會 신도 후손들 '흥남 철수 영웅' 포니 대령의 증손자에 장학금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동천교회엔 거제도 출신이 많다. 1953년생 예수들 동갑인 담임목사 전충현씨와 이석제, 한재화 장로도 그곳 태생이다. 이들의 부모는 1950년 12월 북한에서 떠난 '흥남 철수 1세대'들이다. 함경도 덕천교회를 다녔던 부모세대 130여명을 대피시킨 것은 미 10군단의 배였다. 흥남부두를 떠난 군함이 닿은 거제도에서 정 목사 등의 흥남철수 2세대가 태어났다. 전쟁이 끝난 뒤 피란민들은 지금의 신길동에 자그마한 교회를 세웠다. 떠난 함주군 동천면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담아 교회 이름도 동천교회라고 지었다.



▲ 지난 10일 서울 동천교회에서 흥남철수 때 내려온 피란민의 아들들이 벤 포니(앞줄 가운데)씨를 만났다. 포니씨의 증조부인 고 에드워드 포니 대령은 6·25전쟁 당시 흥남철수작전을 이끌어 피란민 9만1000명을 구했다. 이날 피란민의 후손들은 “은혜를 갚고 싶다”며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재학 중인 포니씨에게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김지호 기자

지난 10일 오후 5시 키가 훗칠한 미국인 청년이 동천교회로 들어섰다. 그를 기다리던 흥남철수 2세대들이 벌떡 일어났다. 이제 백발이 성성한 그들은 “우리는 부모님께 '반드시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랐다. 얼마 안 되지만 학업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흰 봉투를 건네며 청년에게 머리를 숙였다. 십시일반 모은 100만원이었다. 청년은 얼굴이 상기된 채 우리말로 더듬더듬 말했다. “이렇게 다 모시고 장학금을 전달받게 돼 정말 영광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년은 흥남철수의 영웅 에드워드 포니 대령의 증손자 벤 포니(Ben Forney·28)씨였다. 그의 증조부 포니 대령은 6·25전쟁 당시 흥남철수 작전안(案)을 세운 주역이다. 포니 대령은 미 10군단 통역장교 고(故) 현봉학 박사(2007년 별세)와 함께 “여기서 우리가 떠나버리면 저기 있는 모든 사람은 중공군의 공격에 몰살당하고 만다”며 군단장 알몬드 소장을 설득했다. 상륙작전 전문가였던 포니 대령은 특히 “철수는 성공할 수 있고 인도적으로도 중요하다”는 말로 성공의 확신을 심어줬다. 군함과 민간 선박을 합쳐 총 193척이 동원된 해상철수작전은 9만1000명의 피란민을 구출하는 '기적'을 낳았다. 그로부터 65년이 지난 지금. 그의 증손자 벤 포니씨는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진학해 포니가(家)와 한국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고, 흥남철수 2세대들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부모들의 바람을 잊지 않았다.

전충현 목사의 아흔넷 노모(老母)는 “애야, 우리가 어떻게 목숨을 건진 줄 아니”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고 한다. 전목사는 “어머니의 이야기는 꼭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다. 꼭 은혜를 갚고 싶다'는 말로 끝이 났다”고 전했다. 이석제 장로의 부친은 난리통 흥남부두에서 '출반장'이었다. 행패를 부리는 사람은 줄의 맨 뒤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이 장로는 “100만원 장학금은 보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적은 금액”이라면서도 “고마움을 표현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결국 10만원, 20만원씩 주머니돈을 털었다”고 말했다.

벤 포니씨는 1999년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의 증조부 묘소를 찾은 현봉학 박사가 눈물을 흘리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그는 2009년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한국에 건너와 목포 영흥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벤 포니씨는 “증조부와 한국의 인연을 듣고 자랐기에 자연스럽게 한국에 이끌렸다”고 했



다.

-(사진설명)1959년 서울 덕천교회에서 이제실 목사가 에드워드 포니(오른쪽) 대령에게 '흥남철수작전'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70년사

동천교회 사람들은 5년 전 벤 포니씨가 거제도의 흥남철수작전기념비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먼저 연락을 한 뒤, 지금까지 서로 안부를 챙겨왔다. 연세대 어학당을 다녔던 벤 포니씨는 지난해부터 서울대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다. 그는 "서울대 친구들도 '흥남철수' 이야기를 꺼내면 '뭐지?' 하는 반응을 보이는데 저는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며 "흥남철수는 정치나 이념, 전쟁스토리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구했던 인도적(mankind)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외교관을 꿈꾸는 벤 포니씨는 "흥남철수에 대한 기억이 살아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했다. 베이징 인민대부속중학교(人大附中)의 교장으로 재직하는 그의 부친 네드 포니씨도 현재 흥남철수작전에 관한 책을 쓰고 있다고 한다. 입력 및 수정 : 2015.01.14 (조선일보 닷컴)

## 【평신도를 위한 요한복음 해설1】

이재성 교수(Ph.D.,신약신학, 요한복음 전공)

### -요한복음 산책을 준비하며

누군가 요한복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서를 수영장에 비유한다면 코끼리가 들어가 헤엄을 칠 수 있을 정도인 동시에 어린아이들도 마음 놓고 즐겁게 헤엄을 칠 수 있는 수영장입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심오하고, 잔잔한 것 같지만 꿈틀거리고 있고, 태초로 가서는 어느 새 우리 삶의 한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오고, 구약인 것 같은데 어느 새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고... 요한복음이 갖는 매력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요한복음으로 정하고 요한복음을 읽고 또 읽으며 묵상할 때 그 신비한 매력 속으로 점점 더 빨려 들어갔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학위논문을 요한복음으로 정했을 때 이미 그 복음서에 폭 빠져 있었지만...

이제 그 작은 감동을 독자들과 나누고자 한다. 이 글은 신학적인 깊이를 추구하는 글도 아니며, 그렇다고 너무 단순하여 식상하게 느낄만한 글도 아닐 것입니다. 사실 그 누군가의 그 멋진 언급처럼 이 보잘 것 없는 연재가 누군가에게는 어린이의 풀장과 같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코끼리의 풀장과도 같은 역할을 했음하는 바램과 소망을 가져봅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창조와 재창조가 만나고, 구약과 신약이 조우하는 가운데 약속이 성취가 되고, 광야의 외치는 소리가 마치 꿈틀거리며 이리저리 맞추어져 완전체가 되는 트랜스포머의 신기함도 볼 것이고, 황량한 사막 한 가운데서 있는 자에게 목마름을 해결 받게 해 주는 시원한 생수의 비밀도 알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른 아침에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나를 바라보시며 사랑을 확인해 주시는 주님의 그 미소도 보게 될 것이다. 가슴 벅차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를 외칠 수 밖에 없었던 또 다른 베드로인 나를 보게 될 것이고, 한 없이 비교하며 재며 눈치 보며 살았던 나에게 "난 그냥 너를 사랑해"라고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도 듣게 될 것이다. "나는 나다(I am Who I am)"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지식이 믿음을 입고, 핑계가 찬양이 되고, 광야에서 거하게 상(床)을 받으며,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고, 소경이 눈을 뜨며, 무덤이 열리고, 물과 피가 내 위로 쏟아져 죄 씻음과 목마름이 해결되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룩한 감동 가운데 서게 되는 감동을 경험할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함이 이렇게 힘든 것인 줄, 사랑은 결코 포기할 수 없어 사랑이라는 것을, 사랑은 누군가 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로 나아가는 것임을, 한 알의 밀알이 그냥 있어서는 결코 아무 열매도 거둘 수 없음 같이 사랑은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와 섬김과 아픔을 먹고 자라는 눈물인 것을, 사랑은 이미 준 것은 잊어버리고 못다 준 것만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진실을, 사랑은 내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로 흘러가 멈출 때 그 본질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사랑은 멀리 가는 향기라는 것을...우린 요한복음을 통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이기를 소망하며, 함께 걷는 길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세례요한, 나다니엘, 베드로, 니고데모, 수가성 여인, 나사로...-, 많은 것들을 보며, 많은 생각과 사색과 멈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요20:31) 다 기록할 수 없음에 취사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요한의 안타까운 가슴이 역시 나의 가슴 될 것 같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나누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피차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조직신학】

# 하나님은 누구신가?(2)

- 신학, 경륜 그리고 세상과 관계하시는 하나님-

이동영교수(Dr.theol)



### 하나님을 향하여 2인칭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신학자이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신학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4세기의 교부 폰투스의 에바그리우<sup>Evagrius Ponticus</sup>에 따르면, 기도하는 사람이 신학자입니다: “그대가 신학자라면 진정으로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진정으로 기도한다면 그대는

신학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2인칭으로 말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신학자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3인칭으로 말하는 자는 종교학자이지 신학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2인칭으로 말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예배요, 기도요 찬양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신학자입니다.

### 신학과 경륜

그리스도교의 신론은 삼위일체론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sup>3)</sup> 그러므로 우리의 신론은 또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이미 언급했다시피 고대 동방 교부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사유하는 삼위일체교리를 ‘신학’<sup>θεολογια</sup>으로 보았고, 그 외에 다른 교리들을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관한 ‘경륜’<sup>οικονομια</sup>으로 분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신학적 전통에 따르면, 협의의 의미에 따르면 신학은 곧 삼위일체론입니다. 그 외에 다른 분야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경륜에 관한 학문, 즉 경륜(학)인 것입니다.

신학<sup>θεολογια</sup>: 삼위일체론

경륜<sup>οικονομια</sup>: 그리스도론, 구원론, 인간론, 교회론, 종말론, 윤리학 등등

그래서 동방의 신학적 전통에 따르면 그리스도론, 구원론, 인간론, 교회론, 종말론, 윤리학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경륜에 관한 학문들입니다.

### 신학과 경륜을 너무 날카롭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인간이 신학적으로 사유하고 사색할 수 있는 영역은 하나님이 인간 및 세상과 관계하는 경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학’<sup>學, scientia</sup>으로 논구할 수 있는 영역은 경륜의 영역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인간 및 세상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가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sup>historia salutis, Heilsgeschichte</sup>속에서만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륜 또한 신학이라고 부를 수 있고, 불러야만 합니다. 하여 신학과 경륜을 너무 날카롭게 구분하는 동방의 입장을 우리는 비판적으로 수정하여 받아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의의 의미에서 보았을 때, 그리스도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것들 또한 신학이라고 부를 수 있고, 불러야만 합니다.

우리는 동방의 견해에 너무 지나치게 경도되어 삼위일체론만이 신학이며, 나머지는 경륜에 속한 학문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삼위일체론만이 신학이고 나머지는 경륜에 속한 학문이라고 보는 동방의 견해는 굉장히 함축적이고 포괄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통찰이기는 하지만, 광의의 의미에서는 경륜 또한 신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신학과 경륜을 너무 날카롭게 구분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신학과 경륜을 너무 날카롭게 구분하는 동방신학의 입장을 너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성경은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말 한다

성경은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하여 결코 철학적-형이상학적으로 사변하지 아니하며, 초(무)시간적-초역사적-정태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헬라 철학자들의 하나님이지,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의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며,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며, 역사 속에서 성조들(족장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성조들과 동행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생<sup>incarnatio</sup>하심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을 형이상학적으로 사색하고 사변하지 않으며, 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세상에 관한 그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은 오직 그의 행동을 통하여만 알려질 뿐입니다.<sup>4)</sup>

### 성경이 추구하는 신지식은 인간 및 세계와 관련된 신지식이다

성경이 추구하는 신지식은 인간 및 세계와 관련된 신지식입니다. 인간 및 세계와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을 순수

3) 참조. Dong-Young Lee, Der dreieinige Gott und seine Gesellschaft, Schriften der Hans-Ehrenberg-Gesellschaft, Bd. 20, Kamen: Hartmut Spenner, 2013, 1-2.

4) 유해무, 『개혁교의학』, 28, 각주 20.

형식적 형이상학으로 사변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 ‘창조’<sup>creatio</sup>와 더불어 하나님에 관하여 말합니다. 성경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사변적인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조사건과 함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의 구원과 관련하여, 구원역사<sup>historia salutis</sup>의 진행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심화,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희랍철학으로 대변되는 철학의 전통이 추상적 개념에 골몰한다면 성경은 사건과 이야기를 통해서 진실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성경이 구체적 상황 속에서 증언하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단지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으로 환원시키고자 하는 것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의 기하학적인 도형 속에 우구려 넣고자 하는 것과 같은 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성경)을 통하여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인간 및 세상과 관련하여 어떻게 행동하시고, 그러기에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과 인간 및 세상 사이에 무슨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통찰해내기 위하여 해석학적 노력을 경주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해석학적 태도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을 얻는 첩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의존해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고자 사색할 때, 성경 본문이 보도하고 있는 그때 그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기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에 관하여 그렇게 인식하게 되었는지를 진지하게 탐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추구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을 무시한 채 하나님에 관하여 단지 고답적이고 관념적으로 사변하게 될 경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허무맹랑한 추상적 지식으로 전락하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따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 및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신 구체적인 사건들과 행동들이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 개념보다 선행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하나님과 인간 및 세상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성과 그 관계성의 내용인 역사성이 무시된 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추구할 경우 그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추상적인 지식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6)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의 증언에 따라서 인간 및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활동 및 행위와 관련하여 성찰하고 파악해야만 할 것입니다7).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을 통찰하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성경책을 권하며 전도사역을 하는 조선 최초의 권서인 서상륜.

5) 참조.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 『사람을 찾는 하느님』, 49.

6) 참조. 헤셀, 같은 책, 32.

7) 참조. 김균진, 『기독교조직신학』, 제 1권, 18.

배춘섭교수(Ph.D. 선교학과)



상황화(Contextualization)라는 용어는 1972년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신학교육기금(Theological Education Fund, TEF)의 기관 책임자였던 대만 신학자 쇼키 코(Shoki Coe)와 부책임자였던 아론 삽세지안(Aharon Sapsejian)이 처음 사용하였다. 그들이 상황화의 주제를 논의하게 된 배경은 당시 비서구 지역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토착화운동이 성경을 벗어나 지나치게 문화적으로 적응되거나, 타문화권의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이 배타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즉, 상황화는 “말씀의 성육신적 성격을 요구하는 신학적 필요성” 때문에 논의된 주제였다.<sup>8)</sup> 이런 점에서 에큐메니컬 진영에서의 상황화는 ‘복음이 다른 문화적 상황에서 어떻게 적응되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에큐메니컬 진영으로부터 시작된 상황화의 관심은 복음주의 진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1974년 스위스에서 개최된 1차 로잔대회에서 비앙 카토(Byang Kato)는 “상황화란 토착화보다 더 깊은 개념을 지닌 새로운 용어”라고 언급하면서, 복음이 영감 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표현형태는 문화적이기 때문에 복음전달에 있어서 상황화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상황화를 “복음이 타문화권에서 전해질 때 어떻게 문화의 장벽을 뛰어 넘어 어떠한 왜곡이나 오해 없이 바르게 소통될 것인가?”에 신학적 관심을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문화우위적 입장을 고수하는 에큐메니컬 진영과는 달리, 절대불변의 복음의 계시가 어떻게 바르게 전파됨으로써 문화변혁을 일으켜야 하는가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상황화는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견지할 때 “어떻게 복음이 타문화권에서 그 어떤 변질이나 왜곡 없이 바르게 전파되어 죄에 대한 개인의 회심을 통한 총체적인 문화적 변혁을 일으킬 것인가?”를 궁극적인 선교의 목적으로 보고 있다.

복음주의에서 상황화에 대한 논의는 주로 다음과 같이 제기된다. 첫째, 토착화의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자는 주장이다. 제임스 부스웰(James Buswell)은 상황화 대신에 토착성(Indigenity)이나, 토착화(Indigenization)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이런 주장을 한 이유는 토착화의 개념이 상황화보다 더 상징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선교의 효율성이 높다고 평가했기 때문이었다. 둘째, 토착화의 용어를 다소 변경해서 사용하자는 주장이다. 부르스 플레밍(Bruce Fleming)은 ‘상황토착화’(Context-Indigenization)의 모델을



제시했다. 상황화는 에큐메니컬 진영에서 “같은 용어,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에 구별을 위해서였다. 끝으로, 상황화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자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찰스 태버(Charles Taber),<sup>9)</sup> 비앙 카토(Byang Kato), 부루스 니콜스(Bruce. J. Nicholls) 등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런 상황화에 관한 논의를 통해 현재 복음주의는 에큐메니컬 진영과 상황화의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8) 역사적으로 볼 때 서구의 단일문화적 선교전략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상당한 장벽이 되었다. 자문화의 우월의식을 지닌 서구의 선교사들로 인하여 선교지에서는 두 가지의 피해가 나타났다. 하나는 교회개혁과 성장에 큰 걸림돌의 피해였고, 다른 하나는 민족주의로 인한 서구의 선교사에 대한 막연한 반감(antipathy)이나 기독교를 이방인의 종교로 오해하는 피해였다.

9) 태버는 토착화와 상황화 모델의 차이점을 6가지로 비교분석 하였다. 첫째, 토착화는 문화적 장벽을 극복하지 못하지만 상황화는 사회, 정치, 경제적 측면을 다룬다. 둘째, 토착화는 문화를 정적으로 보는데 반해, 상황화는 문화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변혁적 문화를 만든다. 셋째, 토착화는 사회체제를 폐쇄적이고 자기 보전적으로 보는데 반해, 상황화는 변혁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본다. 넷째, 토착화는 서구문화보다 선교지의 문제만 다루는데 반해, 상황화는 서구와 선교지 모두의 문제를 본다. 다섯째, 토착화는 피상적인 복음화에 그치는데 반해, 상황화는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토착화는 조직적인 독립을 강조하는데 반해, 상황화는 근본적 변화를 통한 진정한 토착화를 이룬다. 이와 같이 태버는 상황화를 총체적으로, 역동적으로, 변혁적인 선교모델로 해석한다.

# 【조직신학】 개혁신앙의 기초: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해설(2)

## 개혁신앙의 정립을 위한 교리교육의 중요성

김은수 교수(Ph.D)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이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순종, 참된 믿음과 신앙의 삶에 있어 치열한 "신행일치의 삶"이 언제나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며, 교회 안에서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 적용되는 말씀의 가르침과 올바른 교리교육의 중요성을 거듭 새롭게 인식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교리교육은 왜 필요하며 중요한가? 오늘날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교리교육은 진부하고 고리타분한 일로 인식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너무나 중요한 이유들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기초 교리교육은 참으로 거듭 강조되어야 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 1. 성경을 올바르게 읽고 이해하기 위하여

"오직 성경만으로"(Sola Scriptura!)라는 말은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외적원리를 한마디로 축약하여 표명하는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규범이자 최종적인 권위이다. 그런데 간혹 성도들 가운데는 단순히 성경만 열심히 읽고 배우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항상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그것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것은 언제나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성령으로 영감된 성경의 명료성과 총족성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 항상 분명하게 이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이단들과 미혹케 하는 사설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 왔는데, 그 가운데 대부분의 것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자의로 곡해함으로써 일어난 것들이다. 따라서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도적인 정통신앙과 나아가 그것을 새롭게 재인식하고 천명한 16세기 종교개혁의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의 체계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한다. 사실 정통 개혁주의 신학과 교리체계란 성경 밖에 있는 또 다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이단 사설들에 대하여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라는 종교개혁 원리에 따라 전체 성경의 가르침을 각 신앙의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과 참된 교리는 서로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다. 참으로 신학과 교리는 성경에 기초해야만 하며, 다시 그러한 사도적 정통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올바르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학적 순환"(hermeneutical circle)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가르침'은 곧 '교리'를 의미하며, "올바른 교리"(orthodox)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참된 신학(theologia vera)이다. 이와 같이 참으로 교리는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의 요약이요, 또한 성경을 올바르게 읽고 해석하게 하는 맞춤 안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성경해석의 결과인 '교리'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교리는 성경으로부터 나와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진리의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의 나침반과 같은 도구이다.

### 2. 올바른 신앙의 정립과 실천을 위하여

"오직 은혜만으로"(Sola Gratia!) 그리고 "오직 믿음만으로"(Sola Fide!)라는 말은 종교개혁과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적인 내적원리이다. 참으로 성경이 선언하는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 1:17) 함과 같다. 그러나 간혹 성도들 가운데는 예배와 찬양, 기도 등 은혜롭고 경건한 믿음과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고, 또 도덕적으로 문제없이 깨끗하게 살면 그만이지 도대체 복잡한 신학적 교리들을 왜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물론 올바른 신앙의 가르침(orthodox) 뿐만 아니라, 올바른 신앙의 행위와 경건의 삶(orthopraxis) 또한 아주 중요하며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의 원리와 지식은 신앙의 행위와 실천에 선행하는 것이며, 나아가 신앙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참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또 구원의 원리와 교회 및 종말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곧바로 우리의 신앙행위와 삶의 모습을 결정짓는다. 또한 우리는 교리적인 연구와 교육을 도외시키고 경건한 신앙을 추구했던 18세기 경건주의에 뒤따라 온 것은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이었고, 마침내 오늘날 유럽의 교회는 텅텅 비어 고색창연한 교회 건물들만 유적으로 남겨놓았음을 항상 기억해야만 한다.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인 교리와 신학이 무너지면, 결국 교회는 참된 신앙과 경건의 모습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고백이 없는 신앙의 행위는 맹목적 신앙이며, 행함과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신앙고백은 공허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실로 성경의 가르침과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롬 10:17)는 사실과

함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약 2:26)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언제나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이다.

### 3. 올바른 말씀 전파(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성도들 가운데는 간혹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지상대명령인 전도와 선교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교리공부는 신앙생활을 따분하게 하는 탁상공론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구원의 진리와 복음의 참된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지식이 없이는 올바른 전도와 선교 또한 전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올바르고 효과적인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믿지 않는 이웃들과 이방족 속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해야 할 복음의 진리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분명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대명령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마 28:19-20). 따라서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 기독교의 핵심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및 모든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요약하고 있는 참된 신앙의 교리에 대하여 교육하고 가르쳐 제자삼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의 본질적인 사명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전도/선교의 효과적인 방법과 테크닉을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전파되어야 할 성경적인 진리, 복음의 내용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이해가 우선하여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 *Soli Deo Gloria!*



웨스터민스터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진 그 교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by)**

**그 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서론**

현 한국장로교회의 당회 문제는 그 기능을 왜곡, 상실한 채 마비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목사와 장로의 갈등, 기득권 다툼은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다. 목사는 장로를 목회의 수단으로 생각하여 충성스러운 시녀로만 그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는 편이다. 그 반면 장로는 교인들의 투표로 당회장도 될 수 있고 재직회의 재정부장과 공 예배시의 대표 기도권과 성례 집행과 목사 안수 시 안수권 등등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목사와 장로 사이에 서로의 정체감을 확인함 없이 또는 서로가 해야 할 기능을 성실히 감당함이 없이 권리나 이해타산만 따진다면 여기에는 자연스럽게 갈등과 반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 계속되는 당회원간의 갈등과 반목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본인은 먼저, 목사와 장로의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는 그 기능을 구분할 줄 알아 하나님을 나를 부르신 부름에 충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대안이라고 본다. 전자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고 후자는 마땅히 해야 할 기능이 무엇인가를 아는 문제이다.

**II. 성경과 헌법이 말하는 장로의 개념****1. 성경에서의 장로의 개념**

구약 성경 이전의 장로는 주로, 문중이나 부족 사회의 어른, 늙은이, 연장자의 뜻으로 사용이 되었다. 이것이 조금 후에는 한 공동체나 지역 사회의 대표자나 지도자를 지칭하는 술어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다가 성경에 인용되게 되는데(자켄), 창세기 50장 7절에는 이집트의 장로들이 언급이 되었으나 전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원역사의 목격자와 증인으로 표현이 되는 것은 출애굽기에서이다(출3:16, 4:29). 출애굽기 3장에서 '이스라엘 장로들'로 나타난 이들은 출애굽기 12장에서는 모세의 명을 받아 부족을 이끌어 유월절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자로 기록된다. 이후 '70인 장로단'은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면전에서 먹고 마시는 복을 경험하게 된다(출24:1-11). 이때의 70인 장로는 주로 '백성들의 짐을 덜어주는' 역할을 했으나(민11:17),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이 같은 기능 외에도 전투의 지휘자로서의 기능이, 평화 시에는 재판관의 기능, 백성들의 현명한 충고자와 권면자로서의 기능, 행정의 증인과 공동체의 유지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 등이 추가되었다. 특히 왕이 위급한 상황이나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장로들의 자문을 받았음(왕상 20:7-8, 21:8, 11)과 포로이후에도 장로들이 계속적으로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신다.

신약성경에서는 장로를 지칭하는 Presbyteros란 단어가 총 65회 등장한다. 여기서 등장하는 장로의 개념은 그 의미상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첫째, 산헤드린 소속 평신도 대표로서의 장로들이 언급되어 있다. 공관복음서에 나타난 이들은 주로 당시 종교지도자들과 합세하여 나사렛 예수를 핍박하고, 체포하고, 죽이는 데 관여한다. 이 장로들은 주로 장로들의 유전을 포함한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며 사회질서를 수호, 보존하는 역할을 했다. 이 산헤드린공회는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정치, 사회, 법률적인 분야의 최고 의결 및 통치기구였다. 둘째, 각 지역의 회당 대표로서의 장로가 언급되어 있다. 이들은 회당의 집회를 관장했고,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했고, 여기서 뽑힌 회당장은 설교자를 선정했으며, 회당의 행정적인 관료였다. 셋째, 기독교회 지도자로서의 장로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에 속한 장로들은 다시 세분하여, 예루살렘교회의 지도층에 속한 장로들(행11:27-30; 15:2; 16:4)과 바울이 세운 이방인 교회 지도자로서의 장로들(에베소 교회에 장로회가 있었고-행20:17, 그레데교회에도 장로가 있었다-딤후1:5), 그리고 계시록의 24장로들이다. 천상의 24장로는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주제와 별개의 사항이며, 그리고 두 번째 항에 속한 바울이 세운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장로에 관해서는 그 기원과 자격과 역할에 관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나 첫 번째 항의 장로의 기원과 자격에 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

문제는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장로 제도를 근거하여 볼 때, 언제부터 목사장로와 치리장로가 구분되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목사'라는 말이 신약 에베소서 4장 11절에(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한번 나타나는데 이것을 근거로 한다면 바울의 말년 사역 때에 서서히 장로가 두 기능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혹자는 사도시대 말기에 사도의 가르치는 일면을 계승받은 것이 목사이고, 치리하는 면을 계승받은 것이 장로라고도 주장한다. 그래서 목사든 장로든 그 기능상의 기원을 사도에게서 찾을 수 있으므로 우열을 말하지 않고 독재를 방지하며 협력하여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이유를 말한다.

## 2. 헌법에서

교회 헌법에서는 두 직원을 말하고 있으며, 그것은 장로와 집사이다. 집사에 관해 논하는 것은 이시간의 주제가 아니므로 생략하고 장로에 관해서만 얘기하자. 장로에는 치리장로와 교육장로가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 성경적 기준은 딤편 5:17이며, 여기서 ‘다스리는 장로’(ruling elder)와 ‘가르치는 장로’(teaching elder)를 구별한다. 우리는 흔히 전자를 장로로, 후자를 목사로 부른다.

교회헌법(제5장 제2조-합동측)에 나타난 장로의 권한에 보면, “강도와 교훈은 그의 전무책임은 아니나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 항 사무를 처리 한다”고 했다. 여기서는 장로의 권한의 두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목사와 장로의 동등한 권한을 얘기하는 것으로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모든 사무를 처리 한다’이다. 둘째는, 서로의 직무의 차이점을 말한 것으로, 강도와 교훈은 그의 전무책임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장로는 치리권을 가지나, 목사는 설교권, 치리권을 가진다는 말이다. 목사가 권을 하나 더 가진다고 해서 장로보다 지위가 높다는 얘기는 아니다.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더 받았다는 것뿐이며, 정규 신학수업을 받아 그 일을 전업으로 행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록 장로가 말을 잘하고 가르치는 데 달란트가 있다 해도 강단에서 목사 대신 설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설교를 하려면 정규 신학을 졸업하고 그 일을 전업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치리회에서 목사와 장로의 권리는 같으나 목사가 주체가 되고 장로가 협력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치리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야하며 또한 목사가 목회의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불평등이나 직분의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없다. 단지 둘은 서로 협력하여 교회의 덕을 세워야지(모세-아론과 훌) 서로 대결하거나 투쟁해서는 안 된다.

교회의 ‘정치문답조례’ 제87문의 답에서 목사와 장로의 다른 점을 비교해 두었다. 첫째, 목사와 장로는 그 자격이 다르다. 둘째, 목사와 장로를 택하여 세우는 회가 다르다. 셋째, 장로는 목사가 장립하고 목사는 노회가 장립한다. 넷째, 장로는 당회 관할이요 목사는 노회 관할이다. 다섯째, 장로는 목사 임직에 동참하지 못하며 또한 성례를 관리하지 못한다. 여섯째, 장로가 목사가 될 때에는 다시 장립을 받는다. 일곱째, 목사들은 선교지역의 비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리장로의 직분을 임시라도 행치 못하고 다른 당회의 청함을 받아 임시 당회장이 될 수 있으나 치리장로의 직분은 행할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과 교회헌법을 근거로 하여, 현 교회에서의 목사와 장로의 관계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장로의 정체성을 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장로는 누구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다음에 논할 그 기능을 이해하는데도 유익하다. 왜냐하면 본인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거기에 걸 맞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이다. 둘째, 장로는 치리자이다. 셋째, 장로는 목회 전문가가 아니다. 넷째, 장로는 목사의 협력자이다. 다섯째, 장로는 봉사자이다. 여섯째, 장로는 세상에서의 선교사이다.

장로는 목사의 시녀도 아니요, 목회 조수도 아니다. 그러나 장로는 목회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목사와 동역해야 한다. 장로는 목사를 목회 전문가로 인정해 주고 그 전문적인 사역의 영역을 넘어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목사는 전문 직업이나 장로는 직업이 아니라 봉사자다. (다음호에 계속)



원두우 목사 내외 (왼쪽)를 비롯한 최초의 선교사들과 그 가족 1893년

원두우 목사 내외(왼쪽)를 비롯한 최초의 선교사들과 그 가족 - 1893

**한국개혁신학회 제32회 정기학술심포지엄**

# 개혁신학과 한국교회의 갱신

-장로교와 관련하여-

주최 :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일시 : 2012년 5월 19일(토) 10:00~17:00, 과천소망교회, 02-504-6837~8)

**개회 및 기초강연 (10:00~11:00)**

김영선 교수(연세대)							

**구약신학 (11:00~11:30)**

김영선 교수(연세대)	김영선 교수(연세대)	김영선 교수(연세대)	김영선 교수(연세대)

**신약신학 (11:30~12:00)**

김영선 교수(연세대)	김영선 교수(연세대)	김영선 교수(연세대)	김영선 교수(연세대)

**조약신학 (12:00~12:30)**

김영선 교수(연세대)	김영선 교수(연세대)	김영선 교수(연세대)	김영선 교수(연세대)

**성경신학 (12:30~1:00)**

김영선 교수(연세대)	김영선 교수(연세대)	김영선 교수(연세대)	김영선 교수(연세대)

참가비 : 사전 입금서 30,000원 / 당일 35,000원    입금 계좌 : 농협 581-02-188113/우체국 012948-01-019107  
문의 : (031) 395-0044(학회 사무실), 011-340-0940(학회 전사, 광명동 우체)

## 한국개혁신학회

우리 학교가 관여하는 학회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한국개혁신학회’와 ‘한국복음주의신학회’이다.

이 두 학회는 성경이 정확 무오(無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초위에서 학문작업을 한다. 신학회 중에는 이런 성경관으로 학문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그런 신학회를 비판적으로 본다.

종교개혁적 ‘신학회’란 신학자들이 모여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아직 규명되지 않는 주제들을 규명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나아가지 않고 정로를 벗어날 때, 바른 길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모든 목회자들은 이런 학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나아가 우리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교수들은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비판적 평가를 받음을 통해 자기 신학을 발전시킨다. 수많은 교수들은 스스로 퇴보하지 않기 위해 이 일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학술심포지엄 주최

# 제64회 정기논문발표회

## 복음주의와 성경해석

일시 2014. 10. 25(토) 10:00~18:00    장소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

**본회주최발표**

김영선 교수(연세대)				

**100분 토론**

성경해석, 설교 그리고 교회

김영선 교수(연세대)	김영선 교수(연세대)

**본지주최발표**

김영선 교수(연세대)							

문의 : 홍우 이승구 교수 | 010-4159-8524, 강사 곽용찬 교수 | 010-2597-4527

주최 : 한국복음주의신학회(www.kets.kr)    주관 : 새에덴교회    후원 : 한국복음주의신학회협의회, 후원교회

## 한국복음주의신학회

#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우리 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인재를 양성합니다.

## I. 목회학석사(M.Div) 과정

지원자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자(6학기 과정). 이 과정에는 초교과적으로 모여 공부하지만 칼빈과 개혁과 교회 내지 장로교 목사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 II. 문학석사(M.A) 과정

지원자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자(4학기 과정).

모집학과 - 성경학, 선교학, 기독교 상담학.

- 성경학과: 평신도로서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 '성경의 문학', '성경의 경영학', '성경의 보건학' 등등 성경이 함의 하고 있는 주제로 논문을 쓰게 하여 전문가로 만드는 과정이다. 이 과정(MA)을 마친 다음 '문학박사'(Ph.D.)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 선교학: 단순한 선교사로 사역하기 원하는 분들을 위한 과정이다. 이 과정(MA)을 마친 다음, 학문적인 훈련이 잘 구비된 경우 '선교학 박사학위'(Ph.D.)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 상담학: 상담자로 사역하기 원하는 자들을 위한 과정이다. 이 과정(MA)을 마친 다음 학문적인 훈련이 잘 구비된 경우 '상담학 박사학위'(Ph.D.)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 III. 신학석사(Th.M) 과정

지원자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목회학석사(M.Div) 학위소지자(4학기 과정).

## IV. 철학박사(Ph.D) 과정

지원자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목회학석사(M.Div) 및 신학석사 학위소지자(Th.M)는 성경 신학(구약/신약), 조직신학, 역사신학 및 실천신학에 지원 가능. 그러나 기독교교육학과 기독교상담학 및 선교학 전공자는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목회학석사(M.Div) 및 동일전공 석사(M.A) 학위자도 지원 가능.

## V. 평생교육원 과정

지원자격 - 국내외 학위 및 연령과 관계없이 기독교 신학과 연관된 다양한 교과를 배우고자 하는 자.

교과과정 - 「기독교상담」 (상담연구원) 「평신도 조직신학」 「목회자 주석/설교」

☎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입학문의: 02) 845-7711



## 👉 오시는 길

